

[사회]

광주시교육감 선거 '열전 10일' 돌입

오는 23일 치러질 광주시교육감 선거가 13일부터 본격화된다.

13일 후보자등록과 함께 10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이번 시교육감 선거는 유권자인 학교운영위원회들이 후보자를 상대로 23일 1차 투표를 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를 상대로 25일 결선 투표를 한다.

◇누가 나오나=광주교대 총장을 역임한 김창현(61) 광주교대 교수, 초등 출신의 안순일(61) 광주동부교육장, 전교조 출신의 윤봉근(49) 광주시교육위원, 중등 출신의 윤영월(여·55) 광주서부교육장 등 4명이 출마한다.

당초 출마 이야기가 돌았던 이정재(60) 전 교대총장과 박영부(64) 전 광주시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등 2~3

오늘 등록 마감 22일까지 선거운동 4명 출마...막판 부동산 공략 총력전

명은 출마를 포기했다.

4명의 후보자는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행·배포, 18일과 21일로 예정된 선거주관 소견 발표회, 언론기관 등의 초청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유권자인 학교운영위원회를 직·간접적으로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불법 선거운동이다.

◇유권자의 관심 향배는=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접선거인 만큼 이들의 관심 향배가 최대 관심사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들의 직·간

접 선거로 뽑힌 학부모위원 1천550여명, 교원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된 교원위원 1천220여명,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들이 선출한 지역위원 630여명 등 총 3천420여명이다. 교원위원 1천220여명 중 550여명은 전교조 소속 교사로 파악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가 2천150여명, 여자가 1천260여명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천720여명, 중학교 910여명, 고등학교 740여명이다.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19일 최종 확정된다.

각 후보 선거 캠프에서는 교원위원

과 지역위원 대부분은 이미 표심을 결정했고, 학부모위원의 경우 30%가량을 부동산으로 인식하고 막판 표심 공략에 힘을 쏟고 있다.

◇누가 유리하나=안순일 동부교육장과 윤영월 서부교육장의 경우 현직 교육장이라는 프리미엄을 안고 있어 다른 2명의 후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다. 특히 두 교육장은 자신이 각각 장을 맡고 있는 지역교육청의 광범위한 지지와 함께 현직 교육계 간부의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안 교육장과 윤 교육장의 2강 구도라는 게 교육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하지만 김창현 전 총장과 윤봉근 광주시교육위원의 경우 최근 잇따라 불거진 광주 교육계의 비리로 교육계

10-13	후보자 등록
10-15~18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 신청
10-18	선거공보 발송 선거주관 1차 소견발표회 (오후 4시 KT 광주정보통신센터)
10-19	선거인명부 확정·통보
10-21	선거주관 2차 소견발표회 (오후 4시 KT 광주정보통신센터)
10-23	1차투표
10-25	결선투표 (1차투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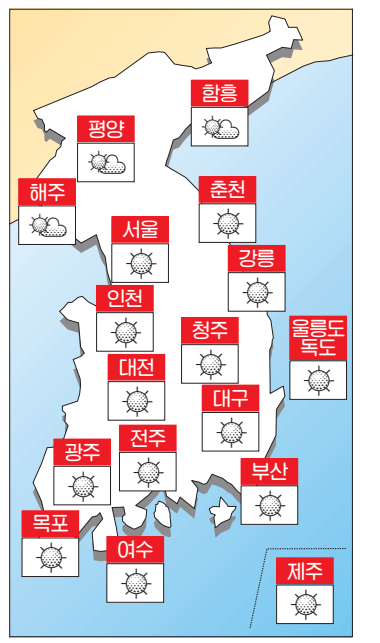
혁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두 교육장 모두가 현직 교육관료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워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교육계는 선거 관세가 초등과 중등 양분 구도 속에 4명의 후보자 중 누구도 압도적 지지를 받지 힘든 상황인 만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기 힘들고 2차 결선 투표에서 후보자 간의 합종연횡이 단락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안개 걷히고 하늘 깨끗 10월 13일 (음 8월 22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조금	12~26℃
부산	구름조금	14~25℃
대구	구름조금	17~25℃
대전	구름조금	14~26℃
전주	구름조금	10~27℃
서울	구름조금	9~26℃
인천	구름조금	9~27℃
경북	구름조금	11~26℃
충청	구름조금	9~27℃
강원	구름조금	13~26℃
제주	구름조금	12~26℃
울릉도	구름조금	8~27℃
독도	구름조금	8~27℃
영남	구름조금	11~26℃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남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목포 밀물 < 05:55 썰물 < 11:05
여수 밀물 < 00:08 썰물 < 06:33

▲해돋이 06:36 ▲해질 18:01 ▲달돋음 22:46 ▲달질 13:18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19(목)
날씨						
최저/최고	13/26	13/25	14/25	14/24	12/24	12/24

광주 일선학교 불법 찬조금 급증

작년 17건 적발 전년비 8.5배나 증가

지난해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서 불법 찬조금을 모금하다 적발된 사례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이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서 불법 찬조금을 모금하다 적발된 건수는 19건으로 전년도의 2건에 비해 17건(8.5배)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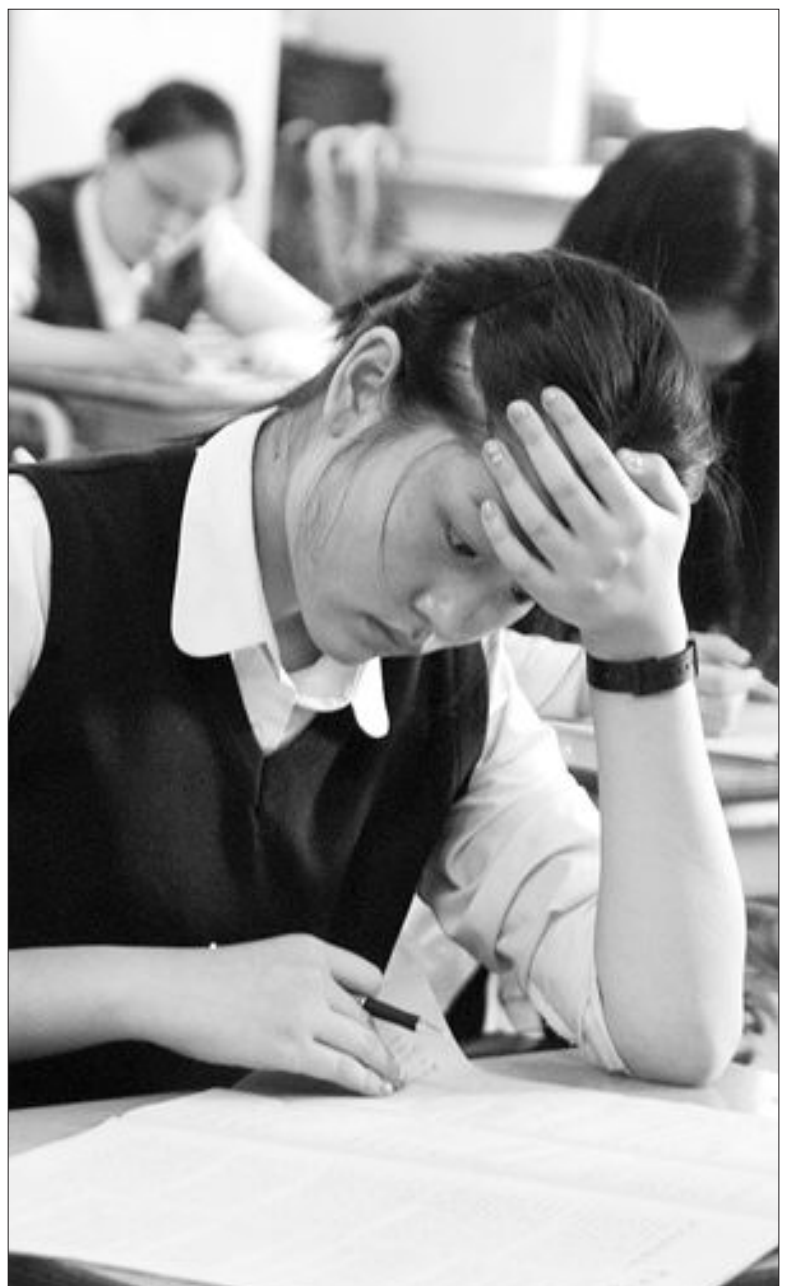
적발된 액수도 1억5천460여만원으로 전년도의 2천220여만원에 비해 1억3천230여만원(5.9배) 늘었다.

전남의 경우 적발 건수는 3건으로 지난 2004년의 1건에서 비해 2건 늘었으나 적발 액수는 900여만원으로 전년도의 1천310여만원보다 410여만원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한해 동안 모두 280건, 41억9천850여만원

의 불법 찬조금이 적발돼 전년도의 148건, 19억1천230여만원에 비해 건수는 132건(89%), 액수로는 22억 8천620여만원(1.2배) 늘었다.

지난해 불법찬조금 적발 총액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대구로 10억4천700여만원에 달했으며, 서울(10억1천720여만원), 경기(6억7천900여만원), 인천(4억6천570여만원) 등이 뒤를 따랐다. 제주는 단 1건의 불법 찬조금도 적발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불법찬조금을 학부모 제보 없이 적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실제 교육 현장에서 불법 찬조금 모금 행위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불법 찬조금 모금이 적발돼도 규정상 반환 조치 외에는 관련자 징계 처리가 어려운 실정에서 불법 찬조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집중!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여일 앞두고 12일 치러진 서울시교육청 주관 '전국모의고사'에 응시한 전남여고 3학년 학생들이 꼼꼼히 문제를 살펴며 풀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시·도, 올 면접선 무더기 탈락 예상 2단계 심층면접 도입

그동안 사범시험 응시생들 사이에 통과 절차로만 여겨졌던 사범시험 3차 면접시험이 올해부터 인성 검증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돼 마지막 관문에서 탈락자가 무더기로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12일 2006년도 사범시험 2차 합격자 1천2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올해 2차 합격자들부터 2단계 심층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시 3차 면접은 최근 10년간 단 1명이 탈락했고 이 때문에 응시생들은 3차 면접을 누구나 통과하는 '요식행위' 정도로 여겨왔다.

올해 심층면접은 기존 3명의 위원으로 편성된 면접조가 1차 면접을 한 뒤 부적격자로 의심되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가 다시 면접을 하게 된다. 특히 심층 면접 결과만으로 최종 탈락자를 선발할 계획이어서 실제 막판에 고배를 마시는 응시생들도 다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남편 몰래 쌍둥이 출산후 살해"

佛 쿠르조 부인 '냉동고 아기' 범행 시인

서울 서래마을 영아 유기 사건의 범인인 프랑스 여성 베로니크 쿠르조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욕실에서 출산한 직후 질식사 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간 리베라시옹은 12일 수사관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2003년 11월의 출산은 두 아들(9,11세)이 집에 없었던 오전 8시30분에서 오후 4시30분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다.

베로니크는 또 피임에 실패해 아이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고 남편 장-루이 몰래 이란성 쌍둥이를 15분 간격으로 낳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프랑스 경찰은 이에 따라 베로니크가 왜 아이를 원하지 않았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부부의 성적 관계는 물론 다른 사회적 관계들이 어땠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수사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간 르 피카로는 "한국 거주 프랑스인이 한국 여성들과 혼외 관계를 갖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양친한 성격의 장-루이는 친구들과 함께 단 한번 룸살롱에 갔는데 그는 그 경험을 전혀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장-루이 친구의 말을 전했다. /연합뉴스

윈도XP 서비스팩1

보안패치 서비스 중단

마이크로소프트(MS)가 10일(미국시간) 윈도XP 서비스팩(SP1)에 대한 보안 패치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SP1 보안 패치 서비스가 중단되면 이를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최신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개

인의 정보를 훔쳐낼 수 있는 해킹과 스파이웨어 등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화면상의 데스크톱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해 속성들을 선택하면 어떤 버전을 돌리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SP2로 업그레이드하려면 한국MS(www.microsoft.com/korea)를 통해 SP2를 다운로드하거나 CD를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방수 아직까지 방수트 고민하십니까? **직접 경사하세요!**

누구나 저비용으로 100% 완벽한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드림특수 방수제는?

- + 방수력 우수
- + 내구성 우수
- + 친환경
- + 시공이 간편
- + 방수력 우수
- + 내구성 우수
- + 친환경
- + 시공이 간편

방수트 전문 업체

080-362-7788

광주전날 이용기능장 1호

가발 시술 12년 경력의 최고실력! **이수채원장** 직접시술관리

심는기발 탄생!!

대신님네 프랑코 가발맞춤

080-362-7788